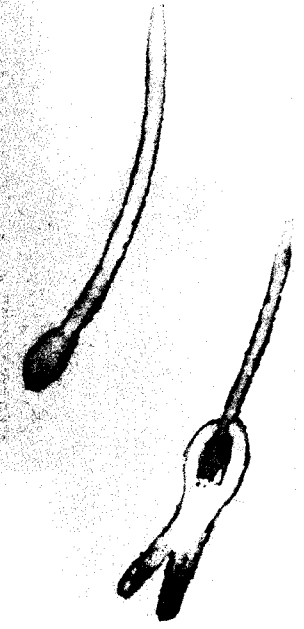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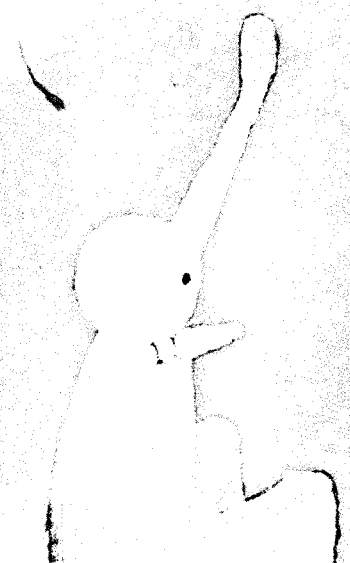




인터넷 세상을 밝히는 아름다운 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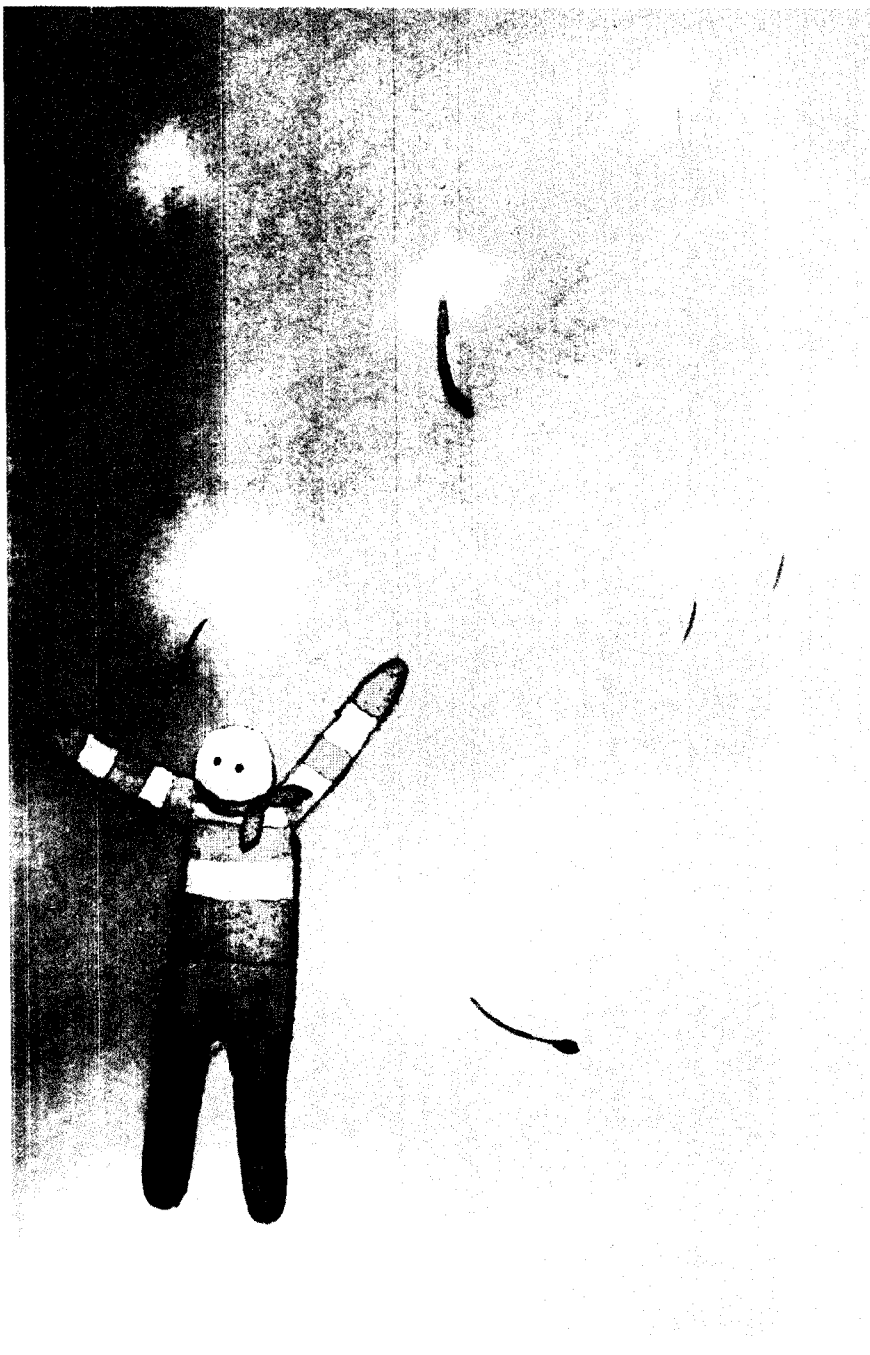
‘인터넷 정보보호

온누리 캠페인’



지난 2월 5~6일, 12일 ‘인터넷 정보보호 온누리 캠페인’이 광주광역시에 있는 하남복지관과 광주장애인복지관, 그리고 강동구에 위치한 강동성내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각각 이뤄졌다. 이번에 찾은 복지관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방문한 곳으로 캠페인 후 사후점검 서비스 차원에서 방문했다.

온누리 캠페인은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등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보호 서비스 지원을 위한 것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대학교 정보보호 관련 동아리, 그리고 장애인 복지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 캠페인에서는 사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교육 및 보안점검 서비스를 제공하며 ▶윈도우 보안패치 및 서비스 팩 설치,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스파이웨어 제거, ▶윈도우 계정, ▶패스워드 관리, ▶공유폴더



보안 설정, ▶ 웹 브라우저 보안설정 등을 점검하게 된다. 지난 19차에서는 경기도 가평에 있는 가평군노인복지회관을 찾아 정보보호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휴대폰 문자보내기 강습, 점심식사 배식 서비스, 복지회관 내외부 환경미화 등이 사회봉사 활동이 함께 어우러지기도 했다.

이날 봉사활동에서도 KISA 직원을 비롯해 대학 동아리 학생 등 약 15명이 참여해 정보보호 서비스 및 환경미화 등이 시종일관 화기에 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한편, 봉사활동에는 경희대, 동명대, 한서대, 세종대 등의 동아리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봉사자 수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따뜻하고 편안한 세상 만들기’를 실천하는 인터넷 정보보호 온누리 캠페인이 2009년에도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S**

